

이방인의 부르심은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로마서 11장 1-16절)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11:12)

10 장 18 절상반절과 19 절 상반절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변명 근거를 묻는다. 그러나 이 두 물음은 배격된다. 복음의 사신은 모든 사람이 접할 수 있게 되어 있다(18 하반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돌리신다는 바로 그 사실이 이스라엘의 귀와 눈을 열게 할 터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거역하는 자기 백성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애쓰신다.

전체 이스라엘이 완악해진 것은 아니다

10:21 에 제시된 암담한 대차 대조표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는 결론이 도출되는가?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반례로 제시한다(11:1).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은 이스라엘의 다수가 불충실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 사실은 엘리야 시대에 이미 드러났으며(2-4 절), 바울 시대에도 여전히 타당하다(5 절, 여기서 ‘남은 자’는 유대인 기독교자들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직 은혜로 가능하다.

바울은 다시 요약한다. 전체로서의 이스라엘은 그 목표를 그르쳤다(9:31 참조). 하나님은 그 은혜 안에서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만이 그 목표에 도달하게 하신다. 완악함과 몽매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은, 오직 은혜만이 작용한다는 주장에 내재된 어두운 면이다. 이 주장은 두 개의 성경 인용을 통해 증명된다. 9 절에서 ‘밧상’(즉 제상)은 이스라엘의 성전 예배 자체가 혼미와 걸림의 울무가 되었음을 상징한다.

이방인의 부르심은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1 절의 물음에 이어 바울은 두 번째 물음을 제기한다. 그는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호하게 부정적인 답을 내린다. 이스라엘은 실족했으나, 궁극적으로 완전히 넘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해 이방인을 위한 길이 열렸다.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은 다시금 이스라엘을 자극하여 회복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12 절의 ‘세상’은 곧 이방 세계를 의미한다). 바울은 전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조심스럽게 표현한다.

13-23 절에서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다. 그는 11-12 절의 사상을 다시 한번 채택한다. 이방인을 향한 자신의 사도직은 간접적으로 유대인에게도 봉사하는 것이다(11 절 하반절 참조). 15 절은 12 절의 내용을 확장한다. 이스라엘을 잠시 제쳐두신 것이 이방 세계의 화목(즉 화해)을 이루는 길을 열어 주었다면,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들이시는 것은 종말적 완성—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는 것”(골 3:1-14 참조)의 시작일 것이다.

이중 비유(16 절)는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버림받지 않았다는 바울의 희망을 확증한다. 뿌리가 거룩하다면, 즉 조상들(9:5 참조)이 하나님께 택함을 입고 받아들여졌다면, 그 택하심은 원칙적으로 전체 이스라엘에게도 유효하다(처음 익은 곡식 가루에 대한 규례는 민 4:15, 20 참조). 16 절 후반절은 이어질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경고—“주제넘게 굴지 말라”—를 위한 실물 교훈의 자료를 제공한다.